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

의회소식

본 회 의
포토의정
의원논단
주요안건처리
5분발언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CHUNGNAM PROVINCIAL COUNCIL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매화밭에서

하루 전 묘목파는곳에서 사놓은
슈퍼대추와 오가피나무 심으려 텃밭에 갔다
어느 식물, 꽃이 다 마찬가지로
차디찬 겨울을 이기고
고결하게 핀 매화꽃을 보면
농사 준비하려
논밭을 둘러보는 농부의 수수한 마음처럼
만개한 매화꽃이 매우 곱다

덤불을 비집고 뿔뿔이 돋아난 싹
낮은 자세로 이파리 땅에다 붙이고
슬기롭게 자라는 냉이.
한겨울 밭 이랑에서 얇은 막으로 하얀 속살 감싸고
아이 발목처럼 오동통하게 굽어진 대파
싱싱한 파란 싹을 뿜내는 쪽파
이 모든 것들은 대지가 품은 사랑이다

막 봄을 시작하는 대지엔
술지게미 먹고 취해 비둘거리며
엉겨주춤 너스레 떨고
시비를 거는 돌개바람도 금세 사라진다
냉이나 싹을 깨는 아낙의 정성
텃밭을 둘러보러 나온 농부
대파 쪽파 한 봉지 뽑아주는 훈훈한 인심
이 모든 순리는 봄을 맞은 대자연의 사랑이다.

- 최명운



March 2013 제51호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의회 소식

CONTENTS

02 제260회 임시회 개회사



13 5분발언



03 본 회의

04 포토의정

08 의원논단

12 주요안건처리



16 도정질문

20 긴급현안질문

21 상임위원회

32 특별위원회

34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궁금했어요



| 발행 |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 전화 | 041)635-5102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디자인 · 제작 | (주)디자인 시티

| 편집 | 총무담당관실

| 팩스 | 041)635-5009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난히도 한파가 맹위를 떨쳤던 겨울이 지나가고, 내일이면 풀과 나무에 싹이 트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깨어나는 경칩으로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한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그 어느때보다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달 19일 구성된 충청권시도의장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충청권 광역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충청권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추구, 국책사업 유치 등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3월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내포 신도시내 각종 공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공사차량과 중장비 이동로 확보 등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각종 사업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는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210만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봄으로 가는 길목이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21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4.

충청남도의회위원장 이준우

“충남도의회, 제260회 임시회”

내포신청사 첫 도정질문, 도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안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3월 4일부터 11일간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내포신청사 이전 후 첫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된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벌여 궁금증을 해소하는가 하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의원(부여)은 미래 유망농업 치유농장 도입, 문화복지위원회 윤미숙 의원(천안)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문제점,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의원(논산)은 KTX 논산 정차역 신설 촉구,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은 충남교육청 전 문직 전형 문제점 관련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다.

4일 오전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연구(대표 김종문 의원), 노인 일자리 창출 연구(대표 이도규 의원), 내포문화권 연구(대표 이종화 의원),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대표 권처원 의원),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연구(대표 서형달 의원) 등 5개의 연구모임에 대해 등록을 승인 하였다. 도의회는 또한 서해안유류사고와 관련 도지사에게 피해주민단체로 신고된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이준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내포신청사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그 동안 도와 교육청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점검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위주의 대안을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60회 임시회는 본회의를 비롯하여 상임위 회의상황이 도의회 홈페이지와 개인 모바일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 포토의정



2월 14일

충남도립청양대학 제14회 학위수여식

이준우의장은 충남도립청양대학 해오름관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위수여와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합격증서 수여, 우수학생 표창을 하였다.



2월 19일

충청권 시·도의장협의회

대전, 충남·북, 세종시 광역의회가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결성하였다. 협약서에서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국책사업 유치에 협력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세종시 특별법 개정등 현안에 협력·대응한다고 하였다.



2월 20일

충청남도 통합방위 회의

이준우 의장은 2013년 문예회관에서 충청남도통합방위 회의에 참석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국민안보의식 함양 방안 및 국가중요 시설 방호태세 확립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2월 27일

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장단 이취임식 및 임원단 교육

송덕빈 부의장은 충남도 3농혁신에 앞장서는 생활개선충청남도 연합회장단 이취임식 및 임원단 교육에 참석하여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권익향상에 기여하도록 당부하였다.



김용필의원 국비확보지원 발벗고나서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에게 예정저수지 치수개선사업과 광역클러스터 조성사업등 신규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애인체육회

이준우 의장과 안희정 도지사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특징버스 키"를 전달하였다.



충청남도 체육3단체 상생발전 워크숍

김기영 부의장은 리솜 스파캐슬에서 열린 충청남도 체육 3단체 상생발전 워크숍에 참석하여 단체간 교류 협력과 도민 스포츠 향유권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서산시 출신 도의원 초청간담회

맹정호, 이도규, 명노희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대한 준비사항과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구간 연장'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포토의정

천안서북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한 김문권 의원

천안시 출신 김문권 의원은 지난 2. 26(화) 11:00 천안서북소방서 회의실에서 새롭게 발대한 천안서북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김문권 의원은 축사에서 천안서북소방서 남·여 의용대원 190명은 이한철 남성대장님과 김원자 여성대장님을 중심

으로 지역안전 확보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다하여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내 재난발생 예방과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원 보도 자료 (김문권 의원)



맹정호 의원 주관 의정토론회 개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을 위해 농작물보험 활성화 해야

충남도의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토론회가 3월 15일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의정토론회를 주관한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은 “충남도의 경우 3농혁신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도 다른 도와는 달리 농민들의 부담을 20%로 줄였다”며 그러나 “보험의 시행과

정에서 농민들과 보험사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충남의 농가는 8903 농가로 이중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4597개, 피해 건수 및 면적은 5556건 9704ha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571억 7000만원으로, 2011년 10억 500만원의 57배에 달했다.

김시형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안정적

인 영농 활동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3농혁신의 주요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강마야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업경영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영농필수품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의열 서산시농업경영인회장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각종 재해로 인하여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의 자기부담율을 초과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크고, 또 자기부담율 20~30% 범위내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의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문화 건설소방위원장의 지역갈등 해결 능력



충남도의회 박문화 의원(논산)이 도로 신설을 놓고 지난 수년 동안 시공사와 주민간의 갈등에 대해 5분 만에 제시한 해결책에 극적인 해결점을 찾았다. 박 의원은 3.20일 논산 채운면 심암리 주민들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국지도 68호선 건설이 완공되면 마을 진출입로가 사라진다는 시행사인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와 빚었던 갈등에 중재안을 제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08년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연무에서 금산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를 신

설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국지도 68호선 건설이 완성되면 논산시 채운면 심암리 2리와 3리를 연결하는 진입로의 허리가 잘리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주민들은 마을을 연결했던 기존 도로와 새롭게 신설되는 4차선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 신설을 요구했고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동부건설측은 두 도로의 폭이 맞지 않고 인근 신호등과의 거리가 가까워 도로법상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지하통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경사도가 7도 내외이어야 하지만 채운면 심암리의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지하통로를 개설할 경우 12도 이상의 경

사도 발생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의 입장은 충남도의회 박문화의원의 또 다른 중재안이 제시되면서 극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박 의원은 심암리 이장단에서 제출한 경사도 해결을 위해 인근의 고지대를 굴착하는 방안과 지하통로 신설 방안을 결합하는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 해결의 분수령이 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과 시공사, 논산시와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각기 자신의 역할을 분담해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분담해 처리키로 하면서 큰 갈등의 위기 상황을 해결했다. 박문화 의원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것뿐”이라고 말했다.

내포신도시의 첫 봄을 맞으며



이준우
충청남도의회 의장

봄 내음이 가득한 냉이를 넣어 끓인 된장국이 한층 식욕을 돋우는 희망의 춘삼월이다. 여기저기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충청도청이 80년 만에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내포신도시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고 있다.

도청과 교육청에 출근하는 공직자들, 새로이 개교한 내포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 각종 공사 차량의 이동, 아파트 건설 현장 등 내포의 봄은 생기가 살아있고 역동적이다. 내포신도시는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충남의 행정중심지를 옮긴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전략이 한계에 달했고 나라 전체적으로 폐해가 나타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충남 발전의 백년대계를 펼친다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도청과 교육청 등 중추 행정기관이 이전하였지만, 내포신도시 개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지역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타운과 더불어 이전해오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이 빨리 조성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고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갖추는 일은 '나 홀로'가 아닌 가족 단위의 이주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토대로 체계적인 투자 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자족도시로 커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개발계획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도시의 초기 입주가 완료되고 안정화된 후, 기업 입주나 외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도시 발전 유인책을 수립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도시와의 동반성장 발전 전략과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홍성·예산 구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중심의 광역 교통망을 서둘러 구축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항만과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내포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아무리 면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들의 힘만으로는 다양성 있는 환경을 만들기 힘들다.”는 미국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말처럼 도시 계획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옷을 잘 입을 수 있고,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 있다. 올해 내포신도시의 봄은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충남 재도약의 첫 단추이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내포신도시를 210만 도민 행복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인 첫 단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춘삼월의 따스한 햇빛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골고루 비치듯이, 충남도의회는 210만 도민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내포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다짐한다.

새누리당 4.24 지방선거 공천폐지를 환영한다



박 찬 중
충청남도의회 의원

박찬중 의원(금산)은 2012년 11월 5일 선진통일당 탈당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를 크게 저해하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또 국회의원들은 원외당원협의회회장 등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 예측 공천잡음, 고비용선거구조, 국회의원과 원외당원 협의회장에 대한 줄서기 등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

권은 바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고 주장했었다.

또한, 박찬중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인물본위, 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하는데 지방 민선인들은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그리고 각 당 대통령후보들은 이를 선거 공약화 하라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대권 후보들에게도 요구

하여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지방선거 공천제폐지를 공약화했고 이어서 각 정당 후보들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놓았고 새누리당에서 이번 4.24 재보선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것은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 공약 이행이며 국민들은 대환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중 의원은 다른 정당들도 새누리당처럼 대 국민 선거공약 실현에 동참하여 주길 바라며 만약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는 대 국민 사기극으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포신도시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과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는 현대식 건축물이 만들어낸 세계적 관광 명소이다. 한때 작은 도시였던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립으로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오고 호텔도 10배가 증가하였으며 4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시드니는 오페라하우스의 건립으로 연간 4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파리와 뉴욕과도 견줄만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충남에도 현대식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할 즈음에 내포신도시에 건립한 충청남도 신청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건축물의 웅장함과 빼어난 경관에 하루에 수십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내포신도시는 용봉산과 용봉천이 휘도는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명당으로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홍성·예산을 중심으로 한 내포지역이 살기좋은 곳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온천과 전통사찰, 해안이 있어 자연스럽게 관광벨트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신청사를 견학한 후 천년고찰 수덕사를 탐방하고 덕산에서 온천욕을, 남한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에서 힐링을, 천수만에서는 해산물 요리를 맛보는 코스로 관광버스가 오가고 있다. 이러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행정

적 자원과 재정적 투자가 있어야하고 지속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내포신도시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곳이 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첫째 내포신도시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충남은 찬란한 백제유적과 대천해수욕장을 포함한 천혜의 해양자원이 있어 연간 외국인 65만명, 내국인 3천만명이 찾아오고 있다. 충남을 찾는 관광객이 내포신도시를 경유할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이고 다각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내포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키워야 한다.

우선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제2서해안고속도로(시흥시~홍성군)와 수도권 전철 연장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노크를 해야하며 공사중인 수덕사 IC와 내포신도시간 진입도로는 조속히 마무리 하고 세종시와 내포신도시간 직통도로를 개설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셋째, 홍성·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신청사는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위치하여 본청건물은 홍성군에 의회건물은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불편과 혼선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성군과 예산군이 내포신도시를 중간에 두고 불협화음이 잦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사항은 뒤로하고 서라도 최근 홍성군과 예산군간 마라톤 행사를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찰이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할 충청남도의 소극적인 자세도 아쉽다.

자치단체간 발목잡기를 해서는 서로가 이로울 것이 없다.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라면 공동개최 또는 격년제 운영은 어떨까? 참가자에게는 더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는 적극적인 자세로 홍성군과 예산군의 단체장 및 의회의장과 서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대승적 차원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내포신도시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적인 시야를 넘어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제260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 현황

총 4건 (조례안 1, 결의안 1, 변경안 2)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의안 전문은 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의정활동 · 의안 · 의안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조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자: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수정가결

| 주요내용 | ❶ 지원대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 게 피해주민단체로 신고된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에 지원하도록 규정 ❷ 연합회는 주민피해의 완전한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 등을 강구하고, 생태계 복원 및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 ❸ 도지사는 연합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결 의 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확대촉구 결의안

제 안 자: 강철민 · 김홍장 · 맹정호 · 명성철 의원
처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❶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기료 감면 지원금을 확대하고 중앙 정부와 발전업체가 공동으로 부담 하여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도록 촉구 ❷ 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 가산금을 확대 시행하고 현행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기
처
의

타
리
안



- ⇒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지사 제안, 원안가결)
- ⇒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교육감 제안, 원안가결)

5분발언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3. 3. 4)

교육계 온정주의와 하향식 일방통행 타파하라

최근 일선 학교현장에서 젊은교사들 사이 바른품성 5운동과 관련하여 돈모으기 운동을 하나더 추가 해야겠다는 말과, 국장, 과장, 장학관을 다시 교장으로 보내는 정도로 과연 환골탈퇴라 할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역주민들의 고언을 들었다며 충남교육청의 온정주의식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일방통행이 세 번의 비극을 낳았으며 앞으로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 교육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노희 의원
| 교육 |

5분발언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3. 3. 14)

우리의 문화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도에는 국보 27점, 보물 104점, 사적 48개소, 명승 3곳 등 941개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수많은 외세침략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등을 거치는 동안 해외로 반출되어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에 약 15만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소장되어 있다가 도난되어 밀반입된 해외반출 문화재, 서산 분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고려 충숙왕 17년, 1330년)을 지금 일본이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로 반출된 우리지역 문화재의 소재를 파악하고 되찾아오는 것은 충남정신을 살리는 동시에 우리의 문화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라 강조하였다.



이도규 의원
| 서산 |

5분발언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3. 3. 14)

사립유치원의 무상 급식 실시를 촉구한다

유치원 원아들은 공·사립 똑같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충남 공립유치원 산하 전체 8,960여명에게는 무상급식을, 사립유치원 산하 18,000여명에게는 월 4만원 안팎의 유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똑같은 충남도민의 자녀인데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은 무상급식하고 사립유치원 원아들만 유상급식을 하는 것은 불공평한 차별이라 규정한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시군지자체와 함께 대응투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충남교육청의 각성을 촉구 하였다.



김지철 의원
| 교육 |

공무원 출퇴근 버스 활용, 문화·관광 시티투어 운행 필요

충남도청 내포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포시에는 현재 주거공간으로 롯데아파트 853세대 이외에 주변에 교육·문화쇼핑 등 정주시설이 없어 이주공무원 가족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다. 충남도가 해당 자치단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인근 한용운선생 및 김좌진 장군생가와 추사고택, 윤봉길의사 기념관, 수덕사, 남연군묘, 덕산온천 등 역사·문화관광지와 광천 전통새우젓거리, 홍성·예산 전통5일장, 그리고 예산 수덕사 산채정식, 예당호 붕어찜, 광시·홍성 한우타운, 남당리 해산물 전문 식당 등을 연계한 공무원 가족대상 시티투어를 운영해 내포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필 의원
| 비례 |

행담도 휴게소 진출입 문제는...

행담도 휴게소는 우리 도 서북부의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지역이며 경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해상위에 떠 있는 유일한 휴게소로 당진항과 서해바다 그리고 서해대교의 전경으로 각광받는 명소이다. 이용객 또한 점차증가되어 2012년 1일 7만 2,800여대로 연간 2,657만 2,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행담도 휴게소 이용 인원은 약 7~8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진·출입이 어려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담도를 이용하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차량 운행시 회차가 가능한 IC(나들목)와 요금소를 조기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종현 의원
| 당진 |

충남교육 도덕성 회복운동을 술선수범 하라

최근 충남 교육이 비리로 얼룩져 국민의 신뢰가 비참하게 추락하였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제대로된 새신안이 요구되며 교단의 안정 신뢰확보 및 방안으로 교육계의 근본적인 “도덕성 회복운동이 자체적 술선수범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한다. 오늘의 사태는 바로 도덕성 결여로부터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오늘의 충남 교육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또다시 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또한 임춘근 동료의원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하였다.



박찬중 의원
| 금산 |

김종성 교육감 당장 사퇴

전임 2명의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줄줄이 낙마한데 이어 김종성 교육감의 매관매직 인사비리로 구속되어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종성 교육감은 지시한바도 없고 죄가 없다고 부인하므로 진실은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범죄조직에서나 나을법한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교육을 강조해온 충남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은 상실된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는 길만이 210만 도민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 주장하였다.



김종문 의원
| 천안 |

도정질문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3. 5)



Q 2014년 KTX논산 정차역 신설 촉구

2014년부터 호남고속철도 오송-공주-광주 구간 개통으로 서대전-논산 역사에 KTX 열차 정차 폐지로 인한 논산훈련소 면회객 불편 예상

도지사A 논산-계룡-대전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KTX사업자와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지가 맞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입대일, 면회일 만이라도 운행을 요구하겠다. 계룡, 세종, 대전, 육군본부와 함께 KTX 논산역 신설과 관련하여 협의하여 서로 힘을 보태겠다.



송덕빈 의원
| 논산 |

Q 논산에 동남부 권역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 설치 촉구

충남의 남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논산지역에 설치하여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

경제통상실장 최운현 A 지금 준비중에 있으며 논산, 금산, 계룡, 부여 일부도 이용을 예상하며 시·군과 도 유관기관 그리고 사무실 준비라든지 제반 세부사항을 위해 연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

Q 미래 유망농업 힐링팜제 제안

전세계적으로 '힐링', 즉 치유(治癒)가 화두가 되고 있다. 몸이나 마음의 아픔을 농장에 찾아와서 농사일을 하면서 상처를 낫게하는 치유농장 '힐링팜' 제도를 우리도에서 선도적 조기도입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도지사A 힐링팜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힐링팜 농장 운영을 활성화시킬수 있고 수요와 공급이 일어날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하고 이 힐링팜제에 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연구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거점 단지의 시범조성 사업을 착수해 보겠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판로 및 지역순환유통체계의 문제는 아무래도 대도시와 직거래 장터를 지역내의 친환경 작목반 및 농민단체들과 함께 직판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시장과도 1차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대도시 직판장 시스템을 늘려나가겠다.



유병돈 의원
| 부여 |



김홍장 의원
| 당진 |

Q 황해경제자유구역 표류대책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약속한대로 오는 3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이 안될 경우 대책과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로 지구지정을 빨리 해제해야 한다.

도지사A 각종 개발공사에 보증행위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로 각 지방공사들이 똑같다. 이것이 민간의 투자를 통해 이끌어질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일반 개발업자들의 기업의 신용도와 자기자본 비율 등에 대한 일정한 규제들을 풀어 기업의 참여 요건을 넓혀 놓았으므로 더 적절한 기업들이 이 산업단지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참여해 낼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뛰겠다



이기철 의원
| 아산 |

Q 당진항과 인주 연육교 건설을

2018년 준공 예정인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를 활용하여 아산 인주면에서 연육교를 통하여 당진항으로 접근하면 천안-안성간 고속도로 정체완화와 물류비 절감

이 기대된다.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반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진행현황은

도지사A 현재 국가항만발전기본계획에 신평-내항간 연육교 사업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당진-인주 걸매리 간 연육교 문제도 2015년에 항만종합계획이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망체제 내에서 수용하도록 검토해서 추진을 계속 해 보겠다.



조남권 의원
| 교육 |

Q 학교 운동장 활용 활성화 방안

학교 운동장이 일반인의 운동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초·중·등학교 68% 이상이 운동장 체육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체육수업이나 체육활동 시 운동장 활용 활성화방안은 무엇인가?

부교육감A 금년 3월, 8월에 충남도내 체육선생님들의 직무연수가 예정되어 있어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티볼, 풋살 등)을 개발하고 강좌를 개설하겠다. 초중학교 체육수업이 주당 3시간인데 3시간 중 2시간을 운동장에서 수업할수 있도록 권장하고 컨설팅 장학을 통해서 지도하여 활용 실적을 60%까지 올려 볼 계획이다. 또한 주5일 수업제에 따라 토요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흥미로운 종목을 개설하고 도내 체육단체 담당부서와 적극 협력하겠다.



맹정호 의원
| 서산 |

Q 대산항자동차부두 건설해야

서산 대산항은 제2,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자동차 부두가 반영되었으나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 인천항, 평택항의 자동차부두 포화로 인한 대체항만 역할과 서산 기아자동차 제품을 평택항까지 육송하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대산항 자동차부두 건설이 시급하다.

도지사A 항만의 기본 인프라, 기술적인 항만건설, 전세계 물동량에 차지하는 세계적인 거점항만에 대한 육성의 비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연찬하고 있다. 일단은 대산, 군산, 평택 항만청과 협력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독자적인 지방항만청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랑 같이 연쇄효과가 있는 항만을 얻고 싶다. 한정된 공간을 특정산업부도로 쓰게되면 사회적 기여도를 좀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도정질문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3. 3. 6)



Q 충남 주민자치는 전국 선도해야

정치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충남의 주민자치가 전국을 선도 할 수 있는 방향이다. 행복한 동네자치 구현을 통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충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A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서 커뮤니티를 보강하고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며 주민자치를 컨설팅하는 센터를 구상중에 있다. 현재 82%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고 금년부터 충남형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면서 2차례 공무원 대상의 프레(Pre)-아카데미를 실시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마을 공동의 의견을 잘 듣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한국자치학과와 충남형 동네자치를 향한 프레(Pre)-주민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고 자 한다.



서형달 의원
| 서 천 |

Q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감축해야

도내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자원발전세가 환경 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

A 감시 감독체계를 조금더 강화할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부터 이동측정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주민스스로가 검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시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 또한 전기세를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등부과를 검토해 달라 요청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Km 반경 읍면동에 대해서 소득중대 사업이나 공공시설이 시장군수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환경피해저감 및 환경개선사업등에 쓰겠다.



명성철 의원
| 보 령 |

Q 예산·홍성 통합주장 대안 제시

도청을 이전하자마자 또다시 예산과 홍성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양군이 통합했을 때 신청사 위치를 도청 신도시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예산군에 설치하는 제안을 홍성군민이 수용해 준다면 예산군민을 설득 하겠다.

A 도청이전은 충남의 균형발전의 좋은 계기이다. 당장은 거리감에 따라 약간의 소외감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에 내포신도시 개발과 예산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외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서 대응하겠다. 예산·홍성의 통합에 있어 가장 큰 원칙은 주민들의 합의이고 두 번째는 통합에 따른 실이익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의원님들도 차분하게 실이익과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



고남중 의원
| 예산 |

Q 지방의료원 통합으로 경영 개선

도내 지방의료원의 부채 총액이 550억원을 넘었고 병상가동율은 81%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몇 년째 적자 경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4개 의료원을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A 공공의료 정책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 이에 의료원 원장이 책임을 지고 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안을 요구했다. 도내 4개 의료원 원장들과 매달 경영혁신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경기도의 통합한 선행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도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바로 착수를 하겠다.



윤미숙 의원
| 천안 |

Q 농어민이 소비자에게 직거래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농어민이 생산하고 가공 유통까지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 과잉 생산이 되었을 때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이 3가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과 축산농가의 위기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A 그동안 추진해온 대책외에 본질적인 문제는 공급과잉 문제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대응책이다. 농수축산물 생산정보 시스템을 더 완비하여 시장가격과 수급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하겠고 과잉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해 해외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대응방안들은 검토해 국가와 논의 하겠다. 당장은 힘들어도 우선은 판촉활동과 소비촉진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



이종화 의원
| 홍성 |

긴급현안질문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3. 3. 14)



교직원 승진제도 보완해야

최근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 비리와 관련한 교육감 구속 사태를 지켜보면 서 처참한 심정이다. 이번사태와 관련해서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쇄신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교원 승진규정과 일반직 승진제도의 보완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답변 교육지원청에 특별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겠으며, 이번에 발표한 쇄신안대로 운영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 승진평가 가산점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깊이 있게 하기위해 T/F도 구성하였다. 또한 교육 전문직문제는 승진소요기간 조정, 포지션 조정등의 문제를 여론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이은철 의원
| 교육 |

충남교육청 인사 및 감사시스템 전면개선 촉구

최근 발생한 교육전문직 선발 비리와 관련하여 교육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하여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사죄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금번 사건으로 문제가 된 충남교육청의 인사 및 감사시스템의 전면 개선을 주장하고,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책임감을 갖고 이번 교육전문직 비리를 양산한 문제의 인사와 감사 시스템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업무공백 제거를 위해 전문직 쇄신안을 발표하였고 인사운영이나 행정면에서 어떠한 부분이 모자란 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TF를 구성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공백 없이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관련 자들에 대한 좌천인사는 약속은 지켰다. 장학관 50% 이상도 실무능력 위주로 바꾸고 그분들이 충남교육을 위해 애쓰고 신명을 바쳐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명노희 의원
| 교육 |



운영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 2013년 의원연구모임 5건 등록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유병국)는 4일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도 의원 연구모임 5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원 연구모임은 도정발전과 정책연구를 위해 의원 5명 이상과 대학 교수,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기간은 2013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날 최종 확정된 연구모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회(대표의원 김종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민간 기업에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널리 확산시켜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 충청남도의회 노인 일자리 창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도규)은 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충청남도의회 내포문화권 연구회(대표의원 이종화)는 내포문화권 유적지 발굴 전승과 계승으로 지역정신문화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홍보로 내포지역문화콘텐츠를 부흥시키고 내포신도시와 내포문화권의 균형 있는 연계개발을 발굴코자 하는 것이다.

▲ 충청남도의회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권처원)는 건설산업의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 충청남도의회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 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서형달)은 일선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구회는 모임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도정에 반영하고 의회홈페이지에 공개 한다.





행정자치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조례안 심사

3.7(목)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안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다. 본 안건은 2014년 완공예정인 홍성의료원 지하주차장 신축으로 인해 취득되는 재산에 대한 내용이다.

☛ **김중문 의원**(천안)은 주차장 설치 후에 홍성의료원의 경영에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와 4개 공공의료원이 누적 적자인데 홍성의료원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불편이 주차문제에만 있는지 다른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홍성의료원이 주차장 설치해서 주차문제 해소에만 그치지 말고 공공의료의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 투명성도 확보해 지역에서 신뢰받는 홍성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우수 주민자치현장 방문

시도 및 도내 우수 주민자치 운영사례 벤치마킹 및 서울사무소 업무현황 청취 등 민생현장 방문

천안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제260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1일 천안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권관희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업무 추진 현황청취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 **유병돈 위원장**(부여)은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가 향후에도 도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김중문 의원**(천안)은 충남도의 3대혁신 과제인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민자치 활동상황이 시설과 장소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와 동주민들간 원활한 소통의 결과로 보인다고 앞으로 자치센터가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정숙 의원**(비례)은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간 23개반 11,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 **김홍장 의원**(당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가선용, 평생학습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하였다.

♣ **김용필 의원**(비례)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쌍용3동의 주민자치 지역특화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물었다.

♣ **맹정호 의원**(서산)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제도적으로 여가·문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데, 적은 예산으로 시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본다면 주민자치센터가 자치분권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충남도 평생학습진흥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충남 서울사무소 / 2013. 3. 12(화)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군 서울사무소와의 통합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유병돈 위원장**(부여)은 서울사무소가 출향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공직자들을 총망라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임의 필요성을 당부하였다.

♣ **김용필 의원**(비례)은 서울사무소가 도정·관광홍보 지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지원, 국회 국비확보 활동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5명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 **김홍장 의원**(당진)은 현재 천안·공주·보령등 6개 시군에서 서울사무소가 운영되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무소가 없는 나머지 시군은 국회나 중앙부처와의 업무협력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물었다.

♣ **명성철 의원**(보령)은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서울사무소 기능변화가 예상되는데 강원도처럼 도와 시군사무소를 통합함으로써 인건비 및 관리비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 **김정숙 의원**(비례)은 서울사무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규모의 행사유치가 필요함.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의 전국규모 행사유치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주민자치센터 / 2012. 3. 12(화)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낸 서울시 염리동 솔트웨이를 벤치마킹 하였다.



♣ **김홍장 의원**(당진) 주민자치센터의 인적자원 발굴에 어려움은 없었는지와 마포구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별도의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 **김정숙 의원**(비례)은 진정한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청소년·노인등 사회적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적하였다.

♣ **김종문 의원**(천안)은 향후 염리동 주민자치센터가 자립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현장방문 후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위주에서 벗어나 인문학 강의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강구하여 내실있게 운영해야 하며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시·군별 중복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이 필요하므로 도와 시군 서울사무소의 통합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문화복지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 도정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 2013. 3. 7(목)

☛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최근 힐링 관광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국제 꽃박람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고 바다와 어울어진 천혜의 휴양자원을 지니고 있는 안면도 휴양림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유익환 의원(태안)**은 안면도 휴양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싼 임대료를 낮추어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성수기에 휴양림 내 주차난과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주차장 증축을 주문하였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현장 / 2013. 3. 7(목)

☛ **유익환 의원(태안)**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1991년 관광지로 지정 받은 후 20년 넘게 사업진척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통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였다.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추진 현장 / 2013. 3. 11(월)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11일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부여 백제문화단지의 (주)롯데 민간위탁 추진 현장을 점검한 결과 볼거리 제공 등 콘텐츠를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4월 임시회에서 세부적으로 현안보고 해줄 것"을 주문했다

☛ **윤미숙 의원(천안)**은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계획중인 44개 사업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금년 4월 임시회에서 세부적으로 현안보고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찬란한 백제역사문화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롯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설보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다.

☛ **유익환 의원(태안)**과 ☛ **조치연 의원(계룡)**은 롯데와의 긴밀한 협조로 시설보강은 물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 **김장옥 의원(비례)**은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재 방문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묻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문화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노인복지시설 “생생꿈마을” / 2013. 3. 11

충남의 노인 인구가 15%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60~70년대 한국의 성장을 이끈 어르신들에게 우리 사회가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

라도 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칠갑산 도립공원 관리실태 / 2013.3.12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칠갑산 도립 공원이 도 지정 공원인 만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출렁다리에 LED 조명 설치 추진 등 칠갑산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명품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유익환 의원(태안)은 공원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연공원법에 의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다양한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검토와 주민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항새마을조성사업현장

항새의 복원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조성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 서식지와 차별화된 녹색생활공간 창출 및 자연학습장 제공 등 친환경 생태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처음 계획에 국비:도비:군비 부담비율이 50:25:25이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담비율을 50:15:35로 조정하여 지원해줘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처음 계획대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1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추진 현장
- 2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현장
- 3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현장
- 4 생생꿈마을 운영실태 현장





농수산경제 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 가축위생연구소, 수산연구소, 충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청취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에서는 3.7(목)일 가축위생연구소와 수산연구소,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의 업무설명을 청취하였다.

「업무계획 보고」시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제초제 등 농약의 사용으로 미꾸라지가 사라져 가는데, 우량토질을 찾아 넓은 들에서 시험 양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갯벌조사가 누락되었는데 추가하여 지역별로 빠짐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 **김홍열 의원**(청양)은 수입산 식용란검사계획과 관련 미생물과 잔류농약 검출시 알 처리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항생제 내성균검사와 관련하여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농가관리 대책과 미꾸리양식시험과 관련해서 미꾸리이용친환경벼재배농가를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연구소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사료값이 높고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외면 등으로 내수면어업이 침체되어 있는데, 친환경양식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서는 태양광 테스트베드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업무설명 시에는 용배수로 사업은 전 지역의 공동된 주민숙원사업으로 단체장이 맘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협의를 통해 개선해 달라고 하였다.

☛ **고남중 의원**(예산)은 도민의 안전먹거리를 책임져야하는 가축위생연구소의 수의직 결원이 7명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므로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서는 결원인원이 24명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위촉직으로 2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이사회에서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 **김득웅 의원**(천안)은 충남지역본부 업무설명시에 공사의 사업예산이 국민의 세금이 대부분이므로 세금을 그냥 쓰는 개념이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 사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농어촌체험마을 등 타당성이 없는 사업추진을 지양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송덕빈 의원**(논산)은 충남지역본부 업무설명시에 농어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용배수로 사업이니 제진기 설치사업의 확대와 용배수로 정비사업예산으로 85지구 61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물관리에 역점을 두고 힘을모아 예산확보에 힘써 줄것을 당부했다.

☛ **이종화 의원**(홍성)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인력을 사용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가축위생연구소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충남지역본부 업무설명시에는 담수호 수계연결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성호, 보령호에 대한 수질상태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가뭄시 대비가 되도록 당부했다.

♣ **조길행 의원**(공주)은 지금은 잡는 어업이 아닌 양식어업의 시대이니 미래전략수산물 해삼시험연구사업 등 수산연구소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제역 이후 축산업이 허가제도로 바뀌었는데 사후 역추적은 어려우니 입출 차량, 분뇨, 사람 등 일지기록등의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축산물 가격이 좋을 때는 정성을 다하는데 하락할 때는 농가의 관심이 적을 수 있으니 질병방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고 하였다.

테크노파크업무보고에서는 충남지역에서 자동차 생산비율이 전국의 38%나 되고, 세계에서 6위이고 앞으로 2~3위로 도약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아산지역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듯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실용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도의 지식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조이환 의원**(서천)은 토마우, 하늘소 등 충남의 한우 대표브랜드에 대한 위조판매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서천 유부도 등 갯벌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이었던 어패류 등에 대한 채취가 과거와 달리 어려워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힘든데 갯벌에서 가능한 양식방법 등을 제공하여 지역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서는 서천지역에 테크노파크 서천분원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 부존자원이 없는 21C는 지상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단이 서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명실상부하게 균형발전이 되도록 낙후된 서남부쪽의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또한, 행감시 지적인 시설원에 난방비 절감기술개발 관련 노력한다고 보고하면서 완료사항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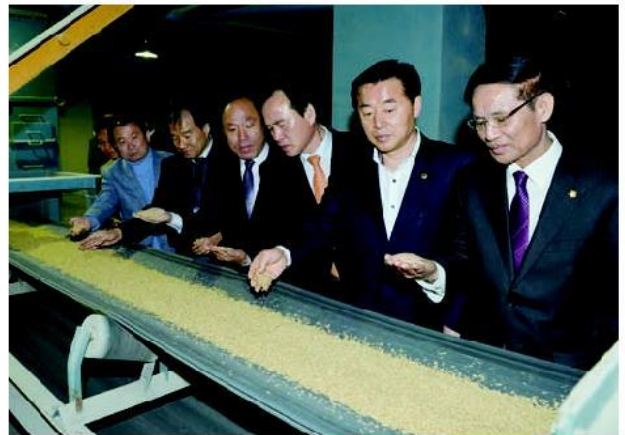
FTA의 파고를 넘기 위해 농어업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 T/P에서 기술개발을 촉구했다.

➡ 견학, 사업장 점검 및 현지 주민애로 청취

국립종자원 충남지원 / 2013. 3. 12(화)

♣ **고남중 의원**(예산)은 2011년 예산 지역내 벼 키다리병 발생 종자 공급에 대한 처리전말에 대해 요구하였다.

♣ **조이환 의원**(서천)은 충남쌀이 시장에서 저가미로 인식되고 있는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량 종자 보급 확대로 소요량 전량공급해야 한다며 예산낭비요인 감축을 위한 생산 보급증진량 소진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간 협조가 필요하다 하였다.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 2013. 3. 12(화)

♣ **이종화 의원**(홍성)은 출하선도자금 지원 대상자는 누구이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생산자 보다 유통업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시설은 아닌지 궁금해 하였으며 냉장·냉동창고가 지하1층에 시설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상 장단점을 비교했다.

♣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타도 친환경농산물 집하 상황과 비교해 보았으며

♣ **김득용 의원**(천안)행정과 농협(사업·관리)과의 사업운영상 역할 관계와 친환경 농산물 거래 기준가격 제시역할에 대한 자료집적 상황을 꼼꼼히 살펴 보았다.

♣ **조길행 의원**(공주)은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입주업체 현

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존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입점 업체와의 갈등은 없는지 물었다.



홍성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 2013. 3. 13(수)

☛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도청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농지가 격 상승현황과 귀농·귀촌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했다.

☛ **조이환 의원(서천)**은 귀농지원센터 상근직 2명에 대한 인건 비 지급액과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금 예산확보 상황을 물었다.

☛ **김홍열 의원(청양)**은 이농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귀농은 일시 적일 수 있으니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착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011년 노력으로 264명의 귀농자를 유치했 는데, 2012년 139명 으로 50% 정도 감소한 사유를 물었다.

☛ **김득웅 의원(천안)** 60세 이상의 퇴직자의 귀향 경향이 있는 데 귀농인의 평균 연령과 정책자금 지원 절차를 확인해 보았 고, 소 등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들이 역외 취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귀농인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농업인들이 살아남아 농촌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조길행 의원(공주)**는 내포시, 세종시 건설로 충청남도 전체로 볼 때 귀농·귀촌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지역 민들이 배타적으로 대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종화 의원(홍성)**은 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홍성은 귀

농을 배울 수 있는 지역이고, 학교도 있어 다른 지역보다 젊은 이의 유입이 많음 귀농은 은퇴하여 오는 것이 아니고 일하러 오는 곳이며 귀농인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홍성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말하고 주택부문이 제일 문제이 며 빈집수리비 5백만원은 부족하므로 추가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 / 2013. 3. 13(수)

☛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시설에 대비하여 주차공간계획이 충 분한지에 대해 점검하였다.

☛ **송덕빈 의원(논산)**은 홍성군과 남당어촌계간 시설물 관리· 운영위탁계약에 의해 입주대상자를 추진되고 있는데, 입주자 가 과중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지원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 였다.

☛ **조길행 의원(공주)**는 시설이 준공된 만큼 입주민과 홍성군의 공동노력으로 주차장과 조경 등의 사업추진을 조속히 추진해 서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개선은 차근차근 진행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 **이종화 의원(홍성)**은 수도·전기 시설만 보완하면 시설운영 에 문제가 없는 것임. 다만 외부계단 등의 설치는 소방법에 의 거 당초 설계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현장방문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 / 2013. 3.7(목)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 등 8명은 내포문화권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당초 계획된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공사가 가야산 생태 탐방로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하였다.

☛ **김기영 의원**(예산)은 당초 버스 등 2차선 통행으로 주민의 편의가 가능한 가야산 순환도로 계획에서 차량통행이 불가한 생태 순환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급경사면과 배수로 등 부실 관리 우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가야산 생태도로 관리를 주문하였다.

☛ **이광열 의원**(아산)과 **유기복 의원**(홍성)은 당초 계획과 달리 생태 탐방로 건설은 관광객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많은데도 각종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등의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확충을 당부하였다.

☛ **유병기 의원**(부여)과 **유병국 의원**(천안)은 당초 내포문화권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가 생태도로 공사로 변경된 것은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시 도민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사업계획을 당부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1 강경-연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 2013.3.11(월) 2 황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2013. 3.11(월)

교통연수원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월 임용된 정재택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으로부터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도민의 교통질서 안전계도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통하여 도민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주문하였다.

☛ **김기영 의원**(예산)은 교통선진화 중장기 발전 계획 중 3단계 시청각 교육장 설치에 따른 주요 교육효과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유병기 의원**(부여)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이 1987년 설립되어 26년 동안 운수종사자 및 도민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히 교육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교통사고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획기적인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주문하였다.

☛ **김문권 의원**(천안)은 일부 대형화물차들의 난폭운전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운전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히 안전교육을 당부하였다.



교육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2013년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지역교육청 운영시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실시 요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및 7개 지역교육청(북부권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1일차)를 갖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탈피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지역교육청에 요구했다. 2013년 2월중 충남교육청 청사가 대전광역시에서 내포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대전 청사(10,874㎡) 및 관련 부지(23,308.2㎡)와 수목을 매각하여 추정가액 268억원 가량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산출된 근거와 효율적인 매각 방법 등 재산관리 현황을 묻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조남권 의원**(교육5)은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추진중인 나라사랑 한·중 국제체험의 운영 현황 및 효과에 대해 묻고 체험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태안교육지원청의 무궁화 심기운동의 추진실적과 신품종 무궁화 및 재래종 식재 계획에 대해 물었으며,

☞ **김석곤 의원**(금산)은 태안교육지원청의 무궁화 심기운동 추진 시 생육환경 검토 등 바닷가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추진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이기철 의원**(아산)은 아산 관내 교직원 중 56%와 교장의 34%가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 학생생활지도에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장 및 교직원이 아산에 거주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요구했다.

☞ **이진환 의원**(천안)은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이 지나치게 타지역 기업에 치우친 것을 우려하며 선정기준 조정을 통해 우리 지역 낙농업체 및 낙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지철 의원**(교육1)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직원 업무경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사례로 들며 공문감축을 위한 노력과 불필요하게 업무를 가중 시킨 사례가 없었는지를 묻고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불요불급한 보고 공문의 폐지 등 업무경감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 **서형달 의원**(서천)은 당진교육지원청의 외국어교육센터 운영방법에 대해 묻고 외국어교육원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해안 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http://council.chungnam.go.kr>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단체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위, 관련 조례 제정 나서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서해안 유류사고 이후 주민피해의 보상과 생태계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피해주민단체를 위한 충청남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충청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명성철)는 3월 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에 조직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 **명성철 위원장(보령)**은 “지난 2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류사고 민사소송의 재판절차 기간을 1년 3개월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게 되면 피해민들이 보다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의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철민 의원(태안)**은 “연합회가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경비를 이용해 단체를 이끌어 온 것으로 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연합회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은 “조례가 제정되면 시기에 늦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특위에서 의결된 본 조례가 오는 3.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충남 총연합회는 도 전체 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 **명성철 위원장(보령)**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는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신속한 배·보상 지원 등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위 현장방문 / 2013.3.8.(금)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 사업발굴 추진 촉구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우)는 3월 8일,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남궁영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업무와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 **윤석우 위원장**(공주)은 “충청남도세종시와의 상생발전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단기에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대부분 중앙부처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속적인 사업발굴추진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숙 의원**(비례)은 “상생발전사업이 단기에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고민만 할 수 없다.”면서 “공주, 천안, 청양 등 인근지역 인구가 세종시로 이동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면서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하여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버스노선, 시설 등에 대한 세종시와의 갈등은 없는지에 파악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충청남도가 연기군을 세종시로 편입시키면서 정부의 재정 보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 **유병국 의원**(천안)은 “세종시가 2030년 50만이 되기 전까지의 충청남도의 단기적 전략, 2030년 이후의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세종시가 행정도시라면 인근지역은 문화도시, 역사도시 건설이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길행 의원**(공주)은 서울시 인구팽창의 대안인 분당시, 일산시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면서 “세종시가 발전하면서 인근지역인 공주시 등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피해에 대해적 역량을 집결하여 범도민적 의지를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하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 **김득웅 부위원장**(천안)은 “세종시 발전으로 인하여 인근 도시와의 격차가 심해질 것은 분명하다. 자칫 세종시로 블랙홀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총체적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유미숙 의원**(천안)은 “기호문화사업이 상생발전사업에 속해 있다는데 높이 평가하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 **윤석우 위원장**(공주)은 “세종시 출범으로 충청남도의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지속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구 할 것”이라 전했다.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너무 궁금했어요”

2013년 2월 15일 부터 3월 14일까지
충청남도의회 청사를 방문하신 분들입니다.
도의회 청사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기념 촬영을 했다.



2.15



⇒ 천안시 지역주민 방문

2.22



⇒ 당진시 지역주민 방문

2.23



⇒ 국제로타리회원 방문

2.26



⇒ 보령시 보건진료소장단 방문

2.27



⇒ 보령시 성주면 여성협의회 회원방문



3.4 덕산 지역주민 방문



3.4 제260회임사회 제1차본회의 태안지역주민방청



3.7 전라남도 의회



3.13 보령시 지역주민 방문



3.14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방문



3.14 보령시 주포면 주민 견학

4·5월에 열리는 즐거운 축제

4

April



계룡산 벚꽃축제

4. 12~14(3일간) |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 일원



계룡산 산신제

4. 25~28(4일간) |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신원사 일원



윤봉길문화축제 (도청이전기념)

4. 26~29(4일간) | 예산군 덕산면 소재 충의사 일원



마곡사 신록축제

4. 27~28(2일간) |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마곡사 일원

5

May



천안 판 페스티벌

5. 10~12(3일간) | 천안시 동남구청 광장 및 명동거리



온새미로축제

5월중(2일간) | 보령시 천북면 신죽1리 일원



한진바지락축제

5월중 | 당진시 송악읍 한진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

5월경(14일간) | 서천군 서면 마랑리 마랑포구 일원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충청남도 의회 회의상황 생중계 방송시대 개막”

홈페이지 및 개인 모바일에서 의회방송 시청 가능



인터넷 생중계 주요서비스

도민에게 좀더 편리하고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 인터넷방송 모바일웹을오픈하였습니다.
이제 어느곳이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충청남도의회 인터넷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가 되고자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충청남도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생방송 및 중계일정 정보 제공



녹화방송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녹화방송 서비스 제공



PC인터넷 방송

인터넷 생중계 시청 방법 (PC에서 도의회 홈페이지 접속)

- 도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접속
-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접속 (<http://webcast.chungnam.go.kr>)
- 스마트폰에서 '충남도의회 인터넷방송' 검색 후 접속
- 스마트폰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webcast.chungnam.go.kr>을 직접 입력하여 접속
- QR코드리더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 를 클릭하세요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